



3 기획 | 끊이지 않는 잡음, 2022 총장선거

5 사회 | 사람은 왜 '부품' 이 되었는가

8 문화 | 알고보면 더 재밌는 카타르 월드컵

10 사람들 | 청춘에게 청춘을 묻다

## 천마 축제, 한국체대의 가을을 물들이다



축제 첫째 날(27일), 한국체대 학생들이 유명 아이돌 그룹 '여자아이들'을 보며 열광하고 있다.

### 3년 만에 돌아온 천마 축제

10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천마 축제가 열렸다. 3년 만에 개최된 축제인 만큼 학교 구성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았다. '헬러원' 콘셉트로 진행된 축제는 주제에 걸맞게 캠퍼스 곳곳에서 다양한 헬러원 분장이나 구조물을 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배틀 그라운드 in KNSU' 축제 마스코트 '한마', '체대네 컷'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있었다. 유튜브 방문 및 촬영, 유명 연예인 섭외 공연 또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띄웠다. 축제 이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이번 축제 역대급이다.", "재밌는 축제를 준비해준 총학생회에 고맙고, 고생했다."라는 학내 구성원들의 반응이 흘러나왔다.

박소영 기자 202220024@m365.knsu.ac.kr

### 주인공은 학생

축제의 주인공은 학생인 만큼, 한국체대 학생들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볼 수 있었다. 헬스 유튜브 '권혁TV'는 주 콘텐츠인 '거리 리프팅(길거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데드리프팅 대회)'을 촬영하기 위해 한국체대를 찾아왔다. 체육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유튜버인 만큼 많은 학생이 촬영 현장을 둘러싸았으며 직접 리프팅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중 김효언 학우(체육학과 역도부 22)가 여자 신기록(200kg)을, 오정민 학우(체육학과 역도부 20)가 남자 신기록(301kg)을 세우며 한국체대의 위엄을 드러냈다.

학과 공연에서는 학부, 학과, 학년 구분 없이 저마다의 장기로 무대를 빛냈다.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공연예술학과의 무대와 태권도학과의 시범부터 시작해,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학기 중 바쁜 시간을 내어 연습한 무대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이 가면을 쓴 채 자신의 목소리만 경연하는 'Voice of KNSU'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을 엿볼 수 있었다. 관객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참가자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어 그들에게 찬

사를 보냈다. 이후 진행된 '디제잉 파티'는 축제장에 있던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댄스 동아리 '지상만무', 밴드 동아리 '봉우리' 등 교내 동아리도 2년간 보여주지 못한 실력을 마음껏 보여줬다. 댄스 동아리 '지상만무'의 부원인 하주연 학우(사회체육학과 22)는 "각 파트장 주도하에 파트 별로 연습을 진행했다. 대체로 개강 직후부터 준비했고, 축제가 다가오고부터는 시간이 부족해서 새벽 연습까지 병행했다."라며 힘들었던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로 인해 무대에 서는 것이 오랜만이어서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았지만,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즐기며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라며 "부원들은 물론 응원해 준 친구들과 학우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첫 축제 무대를 선소감을 전했다.

천마 응원단의 '응원대제전'도 진행되었다. 특히, 윗 학번 선배들과 함께한 '그대에게' 무대는 한국체대의 연대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천마 응원단 회장 윤정섭 학우(노인체육복지학과 20)는 "3년 만에 하게 된 제전이라 기뻐지만 모든 게 순탄치는 않았던 거 같다."며 "나도 제전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한국체대 학우분들의 열띤 호응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긴장감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제전을 함께 즐긴 거 같아 행복했다."라고 말했다.



공연예술학과 학우들이 첫째 날 공연을 하고 있다.



김효언 학우(체육학과 역도부 22)가 '권혁TV' 촬영 중 200KG 데드리프팅에 성공했다.

### 숨은 영웅들

원활한 축제 준비와 진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준 이들이 있다. 먼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축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총학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축제 준비는 3개월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 2년 동안 축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 관련 매뉴얼이나 인수인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부스나 무대 등의 공간 배치부터 현장 통제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준비해야 했다.

축제가 끝나고 짐 정리를 하는 총학과 축제준비위원회(이하 축준위)를 도와 힘을 쓴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도, 직함도 없었지만 같은 한국체대 학생이며 이 축제를 위하고,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다 함께 발을 움직였다.

학교 측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운동장을 관리하는 훈련학생처장은 운동장에 무대 설치와 부스 운영을 허락했다. 또한, 하키장에서 '배틀 그라운드 in KNSU'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는 하키부의 양해가 있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생활협동조합에서 모든 운영을 지원해 진행되었다. 임시 학생팀에서는 학생회 예산을 축제 예산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축제 중에도 축제에 필요한 물품들과 축제 중 들어온 민원 등을 관리해 주었다. 총장도 축제가 지난 3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원래 축제 예산 6,500만 원에 1,5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WPTM에서도 예산 지원이 있었다.

###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2022 천마 축제 QnA \*

#### Q. 축제 준비 위원회가 입고 있던 후드티는 뭔가요?

A. 총학생회 축제 준비팀 중 하나인 홍보팀의 정성은 학우(노인체육복지학과 19)가 디자인했다. 홍보팀은 후드티뿐만 아니라 인스타 축제 관련 게시물로 학생들에게 축제 정보를 제공하고, 축제 마스코트 '한마' 기획도 담당했다.

#### Q. 연예인 섭외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협찬업체 및 아티스트 섭외는 총학생회 섭외협찬팀에서 담당했다. 이들은 여러 아티스트 기획사와 협찬업체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학생들이 축제

준비에서 중점으로 뒀으면 하는 1순위가 아티스트 섭외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노력 끝에 '여자아이들' 섭외료 20% 할인, '10cm' 섭외비 조절 등을 얻어내 섭외에 성공했다.

#### Q. 무대 설치는 왜 총학생회가 하게 됐나요?

A. 트랙 관리를 위해 학교 운동장에 차가 출입하지 못하는 관계로 총학과 축준위 인원들이 무대 및 부스 시설 등 모든 축제 물품을 수작업으로 날랐다. 축제 후 물품을 정리하는 것 역시 그들의 몫이었다. 축제가 끝난 후 새벽 3시까지 축제 현장을 정리했다. 해당 작업을 담당한 총학생회 무대기획팀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

해 외부 음향팀, 무대팀과 끊임없이 무대 시간 조율 등을 했다.

#### Q. 축제 운영진은 모두 총학생회인가?

A. 총학과 축준위가 함께 축제를 운영했다. 총학은 5개의 부서를 조직해 축제 기획, 준비, 운영 등 전반적인 일들을 담당했다. 앞서 언급했던 홍보팀, 섭외협찬팀, 무대기획팀뿐만 아니라 부스 관련 업무와 행사 중 전력량 체크 등을 맡은 부스팀, 프로그램을 기획해 즐길 거리를 책임진 어트랙션팀이 있다. 또, 축준위는 총학생회 인원들을 도와 축제 안전관리 등의 운영을 맡았다.

» 2면으로 계속

